식품의약품안전처	<h1>보도자료</h1>	배 포	2020. 7. 30.(목)
		담 당 과	사이버조사단
단 장		김현선 (☎043-719-1901)	
연 구 관		이주현 (☎043-719-1920)	

특정 피부질환 표방 화장품 온라인 점검결과 발표

습진·가려움 완화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246건 적발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특정 피부질환*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,001건을 점검한 결과, 246건을 적발하여 광고 시정 등 조치하고, 23개 업체(화장품책임판매업자)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

* 습진, 욕창, 피부두드러기, 물집, 무좀, 종기 등

○ 이번 점검은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올해 6월부터 실시하였습니다.

○ 주요 적발내용은 ‘습진, 가려움 완화’(160건)를 표방한 광고였으며, 이 밖에 ‘피부재생’(16건), ‘항균작용’(14건), ‘상처, 염증 치료’(13건), ‘여드름, 피부염, 무좀 등에 효과’(43건) 등이었으며,

- 제품 유형별로는 크림류(86건), 스프레이(37건), 로션(20건), 미스트(13건), 데오도란트(11건) 등 순이었습니다.

□ 식약처는 의료계·소비자단체·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‘민간 광고 검증단’에 이번에 적발한 광고를 자문한 결과,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광고로서 습진·상처 치료 등 질환을 예방·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.

* 민간 광고검증단 :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등을 표방하는 표시·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·교수·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43명으로 구성

○ 아울러,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질환명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, 특히 특정 피부질환에 사용할 경우 일반 피부보다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고 증상이 나빠지면 즉각적인 사용 중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.

□ 식약처는化妆품을 선택할 때 의학적 효능 표방 광고 등 허위·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으며, 앞으로도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허위·과대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

< 첨부 > 광고 위반 사례

< 첨부 > 광고 위반 사례

<p>사례 1</p>	<p>두번째 구매예요 습스로 고생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몇달 간 밤잠 못자고 괴롭히던 한포스이 거의 다 나음.</p>
<p>사례 2</p>	<p>붉은 반점, 가려움증, 염증을 없애세요-우리의 크림은 트사세마, 스킨, 대상 포진, 화상, 벌레 물린 상처 등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.</p>
<p>사례 3</p>	<p>피부 재생 피부 탄력, 노화방지 트러블 진정</p> <p>미백기능성</p>
<p>사례 4</p>	<p>진피층 보습 진피층부터 수분을 채워주어 리얼 보습을 가능하게 합니다.</p> <p>평소 피부 트러블 없던 우리 아이가 세살때 갑자기 엉덩이-허리 부위에 아토피같이 올라와서 연고나 오이** 크림을 발라도 몇주?동안 차도가 없다가 이 로션을 우연히 인터넷에서 보고 주문해서 썼는데 한 두번 바르고 거짓말처럼 피부가 깨끗해졌답니다.</p>
<p>사례 5</p>	<p>03 향균작용 99.9% 향균테스트 합격으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.</p> <p>04 잡균제거 여러가지 발에 있는 박테리아 세균을 제거합니다.</p>